

희망으로 함께하는 삶

정금순 데레사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2010년도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저물어 가는 세월 속에 호스피스와 함께했던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그 동안 환우분들을 만나며 웃고 웃는 일도 많았고, 그 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호스피스가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되었다. 한해를 되돌아보자니 성모님의 달 5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순교성월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간 나의 대녀가 떠올라 잠시 회고해 보고자 한다.

어느 날 수녀님께서 유방암 환우분인데 세례받기를 원하니 교리를 가르쳐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환우분은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자연스럽게 병원과 집을 오가며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자주 만나다보니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그분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은 생활능력이 없는데다가 가정폭력까지 심해 할 수 없이 이혼을 하였다고 했다. 집에 가보면 아픈 상황에서도 얼마나 깔끔하게 생활하는지 살림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보통 수준 이상이였다. 이렇게 좋은 분에게 왜 하느님은 이같은 고통을 주는지 잠시지만 원망도 했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족처럼 깊은 정이 들었다. 환우분이 교리를 받고 있으면 그 옆에 대학 졸업반인 딸이 더 열심히 듣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더니 딸도 입교를 했을 성탄이면 딸도 세례를 받게 된다.

세례 받던 날 얼마나 기뻐하던지 주위가 다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시집을 때 입었던 한복 치마에 저 고리를 새로 맞추었다면서 한껏 멋을 부리고, 떨린

다며 수줍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영세 대모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게 되었고 5월에 세례를 받아 '스텔라'로 다시 태어났다. 이 후 일상생활이 기쁨으로 가득차서 전화도 더 자주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에 아들과 늦둥이 13살 아들을 데리고 목포에 있는 친정 언니, 오빠한테 간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곳에 간지 3일만에 되돌아왔다. 친정 식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환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상처만 받고 왔으며 많이 울었다. 여동생이 언니가 기침이 심하니 컵도 따로 쓰자고 해서 기분이 상해 결국은 모텔서 잠을 잤다고 했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해 환우분의 병이 더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검사해 보니 종양이 머리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식사는 거의 하지 못해 수박으로만 끼니를 잇고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계속 토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중에서도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 보험도 정리하고 늦둥이 아들이 원하는 것도 사주며 딸에게는 여러 가지 부탁하는 유언도 빠지지 않고 했다. 잠시지만 임종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임종하였고, 그토록 원하던 천주교식 장례로 생을 마무리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호스피스팀의 변함없는 지지가 스티라 자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짧았지만 내 대녀 스티라 자매의 삶을 바라보며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모습대로 또 자신의 바람대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텐데 과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떠날 수 있을까? 아마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함께 격려해 주고 희망을 전해주는 이들이 옆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바로 이것이 호스피스 봉사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지금 이 순간도 호스피스팀의 힘찬 응원으로 영

원한 삶에 대한 희망 속에 편안한 생을 마무리하고 있을 많은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내가 호스피스에 몸담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드린다. 모든 환우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호스피스팀원들께 곧 오실 아기예수님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린다.



(사)가톨릭호스피스 후원회 가입 안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이며,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우면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 후원금입금통장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24073 · 국민은행 994437-01-003288 · 농협 301-0067-5700-11
· 신한은행 100-026-725929

■ 예금주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

■ 문의전화 : (02)2258-7039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사랑이 어떤이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입니다.
입금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